

#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

## - 국민제안 조치결과 및 향후대응 -

2026. 4. 23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 순 서

I. 추진배경 및 국민제안 주요내용 ..... 1

II. 민생핵심분야 동향 및 국민제안 조치현황 2

III.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동향 및 대응 ..... 6

[참고] 주요국 에너지가격 안정화 정책사례 ..... 9

# I. 추진배경 및 국민제안 주요내용

□ **(배경)** 체감물가 안정 등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**국민제안창구** 운영

-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」 출범 이후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“국민제안창구” 운영\*(2.27~)

\* 협의회,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2개 회원단체, 관계부처 등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참여

- ☞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 집중 점검, 국민제안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

□ **(주요 내용)** 물가부담 품목에 대해 **117건** 접수 → 부담가격 **제재 강화** 등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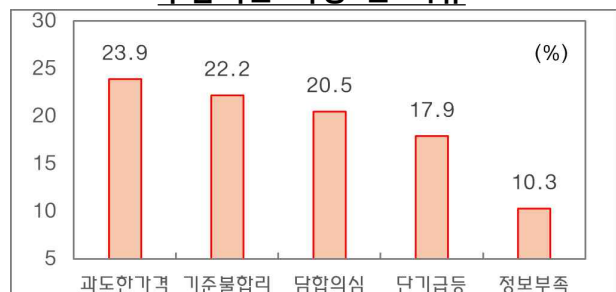
- **(물가부담 분야)** 먹거리, 에너지, 주거 순으로 물가가 부담된다고 답변하였으며, 비싼 가격 외 가격기준 불합리, 담합 의심 등 제시

물가 관련 가장 부담되는 분야



\*기타응답: 교통비, 교육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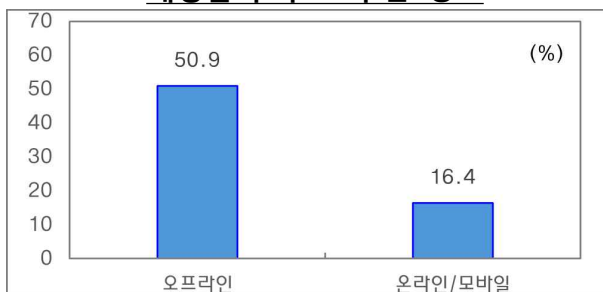
부담되는 가장 큰 이유



\*기타응답: 가격미표기 등

- **(제안 내용)**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부 대응으로 부당한 가격에 대한 제재 강화, 가격안정대책 및 유통구조 개선 순 응답

해당품목 주요 구입 경로



\*기타응답: 개인간거래, 홈쇼핑 등

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



\*기타응답: 가격투명성, 가격표준화 등

- ☞ ❶ 국민제안 관련 **민생핵심분야** 품목 및 ❷ **중동전쟁 영향** 품목들에 대한 **가격동향** 및 **조치사항**을 상시 점검

※ 추가적인 제안들은 **소관부처 검토**를 거쳐 향후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TF」에서 논의

## Ⅱ. 민생핵심분야 동향 및 국민제안 조치현황

### I 에너지

#### 국민의 목소리

- ▶ (석유) "기름값이 하루에 리터당 100원씩 올라요", "유가상승시에는 가격이 급등, 하락시 미반영"
- ▶ (천연가스) "가스 요금이 비싸서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요"
- ※ 에너지 가격부담 이유: (단기급등)26% (가격기준불합리)21% (담합의심)19% (과도하게비쌌)15%

- ☞ 석유류 **최고가가격제**(3.13~)·**유류세 인하**(3.27~5.31)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완화 + 현장점검 통해 **매점매석·불법행위** 점검 → **99건** 위반행위 적발
- ☞ 부탄 **유류세 인하폭 확대**(△10→△25%, 5.1~6.30) + 가스 주택요금 동결 유지

#### ① (석유)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리터당 2,000원 상회

- ▶ 국제유가: <WTI> (2.27)67.0 (4.21)87.1 **<+30.0%>** <Brent> (2.27)72.5 (4.21)95.1 **<+31.2%>**
- ▶ 국제 석유제품: <휘발유> (2.27)79.6 (4.20)118.7 **<+49.1%>** <경유> (2.27)92.9 (4.20)155.1 **<+67.0%>**
- ▶ 국내 석유제품: <휘발유> (2.27)1,693 (4.21)2,004 **<+18.4%>** <경유> (2.27)1,597 (4.21)1,998 **<+25.1%>**

- 석유제품 **최고가가격제** 시행(3.13~) 및 **유류세 인하 확대**(휘발유 △15%, 경유 △25%, 3.27~5.31) 등을 통해 **가격 상승폭 상당부분 완화**

\* KDI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 △0.4~△0.8%p 완화 추정

- 4차 **최고가가격**(4.24)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감안하되 시장영향, 국민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

※ 최고가격제 시행이후인 3.3주~4.2주 휘발유·경유 소비량은 전년비 △5.2% 감소(4.1~2주 △12.3%)

- 석유제품에 대해 **매점매석금지 고시** 시행(3.13) 및 **현장점검** 실시

#### 【 석유제품 매점매석 및 불법행위 점검현황 】

- (매점매석) 국세청은 정유사의 3월 반출량 점검 → 전년비 **92 ~ 136%** 수준으로 위반(90%미만) 없음
- (불법행위)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**5,767개**(~4.19) 주유소 점검  
→ **99건의**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적발, 지방정부에 위반사실 통보

< 적발내역 (~4.19) >

가짜석유	등유주유	정량미달	보관주유*	영업방법위반	품질부적합	거짓보고	계
1	7	1	8	31	3	48	99

\*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등

- 3개국(사우디 등) 원유 도입 확보(2억 7,300만 배럴), 석유 수입지원 강화\* 등 공급확대 및 <sup>공공</sup>차량 2·5부제 등 통한 수요절감 등 수급관리 강화

\* 중동 외 지역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액 확대, 석유공사 대상 30억불 유동성지원 승인(산·수은) 등

## ② (LPG)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반영 예상

- ▶ 국제 LPG가격(\$/톤): <프로판> '26.3월 545 → '4월 750(+37.6%) <부탄> '26.3월 540 → '4월 800(+48.1%)
- ▶ 국내 LPG가격(원/kg): <프로판> '26.3월 1,213 → '4월 1,263(+4.1%) <부탄> '26.3월 1,571 → '4월 1,621(+3.2%)

-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\*( $\Delta 10\% \rightarrow \Delta 25\%$ ( $\Delta 31\text{원}/\ell$ )) 및 인하기간 연장(5.1.~6.30.)

\* 프로판은 탄력세율 최대폭으로 既 인하 중 ( $\Delta 30\%$ )

※ 4.20일 현재 소매가 기준 리터당 부탄 가격은 1,039.7원

## ③ (천연가스) 중동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상승하였으나, 주택용 요금은 '24.8월 이후 동결(20.8495원/MJ) 유지중

- ▶ 국제 LNG 가격(JKM<sup>아시아가격</sup>, \$/백만Btu): (2.27)10.7 → (4.17)16.2 (+51.4%)

- 원전 이용률 제고, 석탄발전 폐지기한 연장(하동·보령, ~'27.3) 등 LNG 발전량 관리 및 가격 영향 최소화

### 【 별첨: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 】

- (진행경과)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발표<sup>'26.3.26일</sup> 시 휘발유·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, 그 인하폭도 확대

- 유류세 인하폭(VAT 10% 포함) : 휘발유  $\Delta 122\text{원}/\ell$  ( $\Delta 15\%$ ), 경유  $\Delta 145\text{원}/\ell$  ( $\Delta 25\%$ )

- (세율조정) 5월부터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상승 영향이 예상되는 LPG부탄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인하기간 연장<sup>4월→6월 종료</sup>

- 유류세 인하폭(VAT 10% 포함) : 부탄  $\Delta 51\text{원}/\ell$  ( $\Delta 25\%$ )  
(현행 인하폭( $\Delta 10\%$ ) 대비 추가 인하폭 :  $\Delta 31\text{원}/\ell$ )

#### <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>

(단위: 원/ℓ)

유종	인하전 탄력 세율	'21.11.12 ~ '22.4.30	'22.5.1. ~ 6.30.	'22.7.1. ~ 12.31.	'23.1.1. ~ '24.6.30	'24.7.1. ~ 10.31.	'24.11.1. ~ '25.4.30	'25.5.1. ~ 10.31.	'25.11.1. ~ '26.3.27.	'26.3.27. ~ '26.4.30	'26.5.1. ~ '26.5.31.
		$\Delta 20\%$	$\Delta 30\%$	$\Delta 37\%$	휘발유 $\Delta 25\%$ 경유 $\Delta 37\%$ 부탄 $\Delta 37\%$	$\Delta 20\%$ $\Delta 30\%$ $\Delta 30\%$	$\Delta 15\%$ $\Delta 23\%$ $\Delta 23\%$	$\Delta 10\%$ $\Delta 15\%$ $\Delta 15\%$	$\Delta 7\%$ $\Delta 10\%$ $\Delta 10\%$	$\Delta 15\%$ $\Delta 25\%$ $\Delta 10\%$ (~4.30.)	$\Delta 15\%$ $\Delta 25\%$ $\Delta 25\%$ (~6.30.)
휘발유	820	656 ( $\Delta 164$ )	573 ( $\Delta 247$ )	516 ( $\Delta 304$ )	615 ( $\Delta 205$ )	656 ( $\Delta 164$ )	698 ( $\Delta 122$ )	738 ( $\Delta 82$ )	763 ( $\Delta 57$ )	698 ( $\Delta 122$ )	698 ( $\Delta 122$ )
경유	581	465 ( $\Delta 116$ )	407 ( $\Delta 174$ )	369 ( $\Delta 212$ )	369 ( $\Delta 212$ )	407 ( $\Delta 174$ )	448 ( $\Delta 133$ )	494 ( $\Delta 87$ )	523 ( $\Delta 58$ )	436 ( $\Delta 145$ )	436 ( $\Delta 145$ )
부탄	203	163 ( $\Delta 40$ )	142 ( $\Delta 61$ )	130 ( $\Delta 73$ )	130 ( $\Delta 73$ )	142 ( $\Delta 61$ )	156 ( $\Delta 47$ )	173 ( $\Delta 30$ )	183 ( $\Delta 20$ )	183 (~4.30.)	152 ( $\Delta 51$ ) (~6.30.)

\* ( )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

- (적용기간) '26. 5. 1. ~ 6. 30. (2개월)
- (향후계획)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('26.4.28.) 등을 거쳐 5.1일부터 시행
- (기대효과)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

## II 민생핵심 먹거리

### 국민의 목소리

- ▶ (농·축산물) "과일이 다른나라보다 비싸요" "계란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올라 담합이 의심돼요"
  - ▶ (수산물) "고등어 2마리가 이제 만원이 넘어요"
  - ▶ (가공식품) "빵값 등 가공식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"
- ※ 먹거리 가격부담 이유: (과도하게비쌌)25% (담합의심)20% (단기급등)19% (가격기준불합리)19%

- ☞ 농축수산물 **할당관세, 할인지원, 수입다변화**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 강화
- ☞ 가공식품 **가격 안정 + 포장재** 수급 어려움 해소 노력 지속

### ① (농축수산물)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\*되는 가운데 과일은 2개월 연속 전월비 감소(<sup>2월</sup>△0.3→<sup>3월</sup>△0.1%), 일부 축·수산물 강세

- \* 농축수산물 물가(전년비): ('25.10)3.6 (11)5.6 (12)4.1 ('26.1)2.6 (2)1.7 (3)△0.6
- ↳ '26.1/4분기 가격감소 품목(%): 귤(△16), 참외(△5), 배(△24), 오렌지(△5), 배추(△22) / 토마토(△6), 파(△13), 양파(△19), 무(△38), 오이(△8), 호박(△10), 당근(△45) / 게(△3), 명태(△0.1), 굴(△5)

- 4~6월 320억원 할인지원(최대 50%), 할당관세, 수입다변화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노력 강화

#### 【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 】

- ① (쌀) 전년비 강세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양곡 10만톤 공급(3.17~4.17) 등으로 최근 산지쌀값 소폭 하락 → 필요시 5만톤 추가 공급 등 추진
  - \* 산지 쌀값(20kg): ('26.2) 57,624 → (3) 57,678 → (4.5) 57,450 → (4.15) 57,447
  - \* 쌀 소매가(20kg): ('26.2) 62,923 → (3) 62,802 → (4.1~15) 62,614
- ② (과일) 수입과일의 경우 할당관세 도입(바나나·파인애플·망고, 2~6월) 이후 다소 안정세
  - \* 파인애플(원/개): (2.上) 8,106 → (4.上) 7,430 / 망고(원/개): (2.上) 6,019 → (4.上) 3,494
  - 바나나(원/100g): (2.上) 341 → (4.上) 330
- ③ (계란)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격 상승세 → 수급안정 위한 신선란 수입 추진 (태국산 224만개, 미국산 224만개), 할인지원 실시
  - \* 계란(특란, 원/30구): ('26.2) 6,561 → (3) 6,843 → (4.1~15) 6,993
- 산지가격 적정성 검증 추진, 담합 적발 업체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엄정대응
- ④ (닭고기) 성수기(5~8월) 대비하여 육용종란 수입(스페인 800만개, 벨기에 1,500만개), 할인지원(최대 40%) 등 추진
  - \* 닭고기(1kg): ('26.2) 5,938 → (3) 6,376 → (4.1~15) 6,592
- ⑤ (고등어) 노르웨이산 어획량 감소로 가격 강세 → 수산물 할인행사(최대 50%) 및 '국민 실속 고등어(소형)' 시범판매, 수입선 다변화(칠레) 추진
  - \* 고등어(국산염장, 中, 원/1순): ('26.2) 6,265 → (3) 6,231 → (4.1~15) 5,567
  - \* 고등어(수입염장, 大, 원/1순): ('26.2) 10,746 → (3) 10,609 → (4.1~15) 11,072

② **(가공식품)** 제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후 식품업체도 가격 인하(3~4월), 다만 향후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, 포장재 수급 어려움 등 우려

▶ **(제빵)**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 주요 제빵업체 빵 가격 인하

\* (파리바게트(3.13일~)) 100~1,000원 ↓ (뚜레쥬르(3.12일~)) 100~1,100원 ↓

▶ **(가공식품)** 주요 식품업체 식용유, 라면에 이어 제과, 양산빵, 빙과제품 등 가격인하(4월)

\* (식용유) 평균 3~6% ↓ (라면) 4.6~14.6% ↓ (제과) 2.9~5.6% ↓ (양산빵) 5.4~6.0% ↓ (빙과) 8.2~13.4% ↓

■ **식품원료 22종\* 할당관세 및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 지원\*\* 지속**

\* 계란가공품·커피·코코아생두 등 \*\* 외식업체 육성자금(300억원),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(4.5억원) 등

■ **포장재 규제 완화(4.5)\* 등을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하고, 계란, 밀가루, 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 마무리 추진**

\* 포장재 사용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·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

### Ⅲ **민생핵심 서비스**

#### **국민의 목소리**

▶ **(학원비)** “학원비 가격기준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”

▶ **(통신비)** “핸드폰 요금이란 핸드폰 기기값이 너무 비싸요”

▶ **(관리비)** “관리비가 너무 비싸고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요”

▶ **(항공료)** “유류할증료 인상폭이 실제 유가 인상폭을 상회하는 것 같아요”

※ 서비스 가격부담 이유: (가격기준불합리)23% (과도하게비쌈)23% (담합의심)20% (단기급등)14%

☞ **(학원비)**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**과징금 신설** 및 신고포상금 인상

☞ **(통신비)** 쉰 데이터 요금제에 **데이터 안심옵션(QoS)** 포함

☞ **(관리비)**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**공개 의무화**

☞ **(항공료)** 항공사 부담완화 위해 **재무개선 조치·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등 유예**

① **(학원비)** 교습비 초과징수, 기타경비(급식비 등) 과다징수 등 다수 적발

\* 학원 특별 점검(18,970개소)을 통해 2,763건 적발 및 과태료 10.4억원 부과('26.4. 현재)

■ **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 신설 및 신고포상금 10배 인상(학원법 등 개정 추진)**

② **(통신비)** 가계 통신비 부담은 완화 추세이나, 제공된 데이터·음성 등 소진 후 추가 과금 우려로 인한 이용 제한 발생

■ **쉰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\*(QoS)을 포함하고, 65세 이상 음성·문자 추가 제공 및 신청 없이도 연령별 혜택 자동 제공('26.上)**

\*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

③ **(관리비)**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발생 가능

\* 관리인 선임시 관리비 정보공개 비율 87.5% 관리인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비율 0%(법무부 실태조사)

■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

\*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, 「집합건물법」 개정 추진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개정(完) 및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

④ **(항공료)** 중동전쟁 영향으로 항공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 국내·외 노선 유류할증료 상승(국제선 최고단계인 33단계 적용)

- ▶ <국내선> ('26.3월) 6,600~7,700 (4월) 7,700~8,800 (5월) 25,000~34,100원(항공사별 상이)  
<국제선> ('26.3월) 1.4~9.9만원 (4월)4.2~30.3만원 (5월)7.5~56.4만원 (대한항공 기준, 노선별 상이)
- ▶ 유류할증료 단계는 MOPS 항공유 가격에 연동되어 기준표에 따라 자동 결정

■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 유예\*,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축소시 슬롯 회수 유예\*\* 추진

\* 기존 재무구조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기간 3개월 연장, 신규 개선 필요 항공사는 개선명령 6개월 유예

\*\* 국내선 운항편 중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기간(5~6월, 9~10월)에 한정

### Ⅲ.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동향 및 대응

- ☞ **나프타, 요소·요소수, 주사기** 등 주요 수급우려 원자재·소비재 등에 대해 **매점매석금지, 긴급수급조정조치** 등 시행 → **신고센터·현장점검반** 점검
- ☞ **건설현장** 현장점검(274건(~4.17))·간담회 등 통해 **건설자재 수급관리 강화**

#### I 원자재

○ **(나프타)** 중동전쟁 前 대비 높은 가격수준 지속 → 수급관리 강화

- ▶ 나프타 가격(\$/톤, 2.27 대비 상승(%)): (2.27)652 (3.31)1,388 (4.6)1,341 (4.20)1,049 (+61%)

■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(3.27) 이후 기초유분 7종 위기품목에 대해서도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(4.15) 시행

■ 오만(160만톤)·사우디(50만톤)로부터 나프타 210만톤 확보(4월말부터 순차도입), 수입단가 차액지원\* 등 수급 안정화(추경 6,744억원) 추진

\* 나프타 및 대체원료 대상으로 중동전쟁 이전 수입단가 초과분에 대해 50% 보조



- **(요소·요소수)** 재고는 안정적 수준(약 3개월분)을 유지중이나, 차량용 요소수 판매가격은 가수요, 원료가 인상 등으로 소폭 상승

▶ 차량용 요소수(주유소) 가격: (2.27) 1,516.6원/ℓ → (4.20) 1591.2원/ℓ

-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(3.27~) 이후 4,295개(~4.17) 제조사·유통사·주유소의 수급실태 점검 실시(위반사항 없음)
- 일부기업의 요소 재고부족 대응 위해 공공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하고(4.23~), 차량용 요소 차액 지원사업\*(추경 39억원) 추진

\*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제3국 요소 수입시 중국 가격대비 차액 일부 지원

## II 중간재 · 건설자재

### ① **(건설자재)** 아스팔트, 레미콘혼화제 등 가격인상 → 수급관리 강화

▶ 아스팔트 가격 : (2월) 700원/kg → (4월) 1,100원/kg

\* 아스콘협회 제공 수치로 추가 인상가능성 有

▶ 레미콘혼화제 가격: (2월) 800~900원/kg → (4월) 1,000~1,200원/kg 수준

\* 제품 규격별, 업체별로 차이 有

- 일부 정유사의 아스팔트 생산 감축 → 민관수급협의체(광주(4.16), 경남(4.17), 서울(4.20), 대전(4.21), 인천(4.22) 등) 시급현장\* 우선공급 추진

\* ①차량 다수이용 도로의 응급복구, ②시급한 지역행사 연계도로 등

- 건설자재 현장점검(<sup>4.17 기준</sup> 274건) 및 건설업계 간담회 등 통해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, 공기연장 지원 및 금융·보증지원\* 등 추진

\* 주금공 건축공사비 PF보증 공급 확대(25~4조원), HUG 보증수수료 감면 공제조합 특별융자(조합별 3천억원) 등

### ② **(농업용 멀칭필름)** 6월까지 농업현장 필요량은 대부분 확보되어 있으나, 원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

▶ 판매업체(지역농협·민간자재상) 현장점검 결과, 재고 보관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판매 업체에서 원자재(PE) 가격 상승 후 소량 발주한 제품 위주로 가격 인상

-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에 대해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, 지역간 물량조정(예: 초평농협-진천농협) 등 지원 추진

\* 일부 지역(예:천안)에서는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비닐 구매 가격의 50% 지원중

### ③ (비료) 현행가격 유지중이나, 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인상 가능성

▶ 국내 비료는 농협이 97% 공급, 현재 87.1만원/톤으로 판매가 유지중

- 무기질비료 가격보조(추경 115억원) 신속 집행, 완제품 물량 관리\* 및 완제품이 부족한 농협에 우선 공급 조치 등 추진

\* ①지역농협 대상 전년 월별 판매량 이내 공급 / ②농업인 대상 전년 월별 구매량 이내 판매

## III 소비재 · 서비스

### ① (주사기) 원재료 수급 우려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완제품 출고가 인상(20%)

▶ 주사기 가격(제조업체 출고가 기준): (2.27) 약 50원/개 → (4.20) 약 60원/개

- 주사기·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시행(4.14~) 및 특별단속반\* 운영

\* 35개조(70명)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점매석 등 위반사항 현장점검

- 주사기 생산량은 증가세(<sup>4.14</sup>332만→<sup>4.20</sup>420만개)이며, 제조사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추가 증산 추진

### ② (종량제봉투) 전국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동향 없음

▶ 전국 종량제 20ℓ 평균 가격: (2.27) 703원 → (4.20) 703원

- 재고부족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간 물량조정중이며, 재생원료를 사용한 봉투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\* 체결(4.13)

\*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, 한국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, 환경공단, 인테크 등 참여

### ③ (세탁비) 모바일 세탁 플랫폼 세탁비 인상 공지 및 일부 지역 3월 세탁료 인상 → 일일점검체계 구축하여 가격동향 지속 점검

▶ 모바일 세탁 플랫폼 업체 와이셔츠 세탁 2,400→2,900원으로 인상 예정(+21%) \*타품목 인상없음

▶ 3월 전국 평균 세탁비 상승률은 0.37%로서 최근 1년간(25.1~12) 월 평균 상승률 0.39% 하회

👉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**국민제안** 및 소비자 의견 지속 수렴하여 **신속히 대응**

👉 **중동전쟁** 영향 최소화를 위한 **가격·수급동향 상시 점검 및 대응 추진**

-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①가격 상한제, ②유류세 인하, ③취약계층 지원, ④관리·감독 강화 등 실시

① (가격 상한제) 가격 상한제 실시 및 민간의 자발적 협조 등 요청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일본)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 유지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 지급 (3.19~)
- (중국) 발개위는 정제유 가격 임시조정 조치를 통해 휘발유·경유 가격 인상폭 조정
- (독일) 주유소 가격 인상은 하루 1회, 정오에만 가능하도록 규제(인하는 언제든지 가능)
- (영국)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 강화, 연료 폭리행위 감시하기 위한 시장조사 실시 예정 \* 연간 평균 상한액 (1Q) £1,758 → (2Q) £1,641(△6.6%↓)
- (프랑스) 정부·업계 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(TotalEnergies(佛 최대 정유업체) 가격 상한제 도입)

② (유류세 등 인하)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지원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미국) 조지아 주(州) 유류세 부과 60일간 유예(휘발유 갤런당 33.3센트, 경유 갤런당 37.3센트)
- (영국) 유류세 인상계획을 연기하고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유지
- (스웨덴) 한시적(5.1일~9.30일) 유류세 인하(휘발유 리터당 1크로나, 경유 0.4크로나)
- (스페인)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(21→10%)
- (이탈리아) 유류세 리터당 €0.25 인하

③ (취약계층 지원)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, 취약업종 등에 대해 재정지원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영국) 난방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 농촌 가구를 선별 지원을 위해 약 5,300만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비용 지원 대책 발표 (3.16일)
- (프랑스) 일부 취약업종(운송업, 어업, 농업) 한정 유가 관련 재정지원(운송업은 보조금 지원, 어업은 연료비 환급, 농업은 소비세 면제 등)
- (스웨덴) 전기·가스 소비량에 비례해서 지원금 지급
- (스페인) 농업·운송부문 리터당 20센트 연료보조금 지급

④ (관리·감독 강화) 가격 담합, 폭리 등에 대한 조사 등 실시

【 주요국 사례 】

- (미국) 美 법무부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틈타 가격 조작을 한 혐의로 주요 비료 생산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(3.10일)
- (독일) 중동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, 독일 정부는 가격형성 구조 점검을 위해 BP, 쉘 등 주요 정유사 소환 및 회의 개최 (3.16일)
- (프랑스) 전국 주유소 대상 약 630건 이상의 집중 단속 시행, 가격 폭리 등 부정 사례를 적발(전체 주유소의 약 5% 수준), 제재 예고